

충남·전북 닥터헬기 최신 중형 기종으로 교체, '하늘을 나는 응급실' 기능 강화

- 의료진 처치환경 개선·이송 범위 확대로 전국 단위 중증응급환자 이송 적극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충청남도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치된 닥터헬기 2대를 기존 소형 기종(AW-109)에서 중형 기종(AW-169)으로 교체하여 운항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치된 닥터헬기는 2016년부터 각각 운항을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간 중증외상, 급성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3,500여 명을 이송하며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기내 공간이 협소하고 운항 가능 범위가 제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중형 기종은 기존 소형 기종보다 기내 의료공간이 넓어 의료장비 운용 여건과 의료진 처치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최신 기종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항공의료팀이 이송 과정에서도 인공호흡기 적용, 기도 관리, 심폐소생술 등 전문 응급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운항 가능 범위가 반경 130km에서 270km로 확대되어 중증외상, 고위험임신 등 필요시 전국 단위 항공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중형 기종 도입을 계기로 중증응급환

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역량과 항공 이송 품질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번 중형 기종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하늘을 나는 응급실’ 의 처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며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전문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항 체계를 지속 보강하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닥터헬기 운영 제원
2. 신규 도입 중형 닥터헬기 사진

담당 부서 <총괄>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2640)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2-264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현장이송팀	책임자	팀 장	조은덕 (02-6362-3403)
		담당자	차 장	최창신 (02-6362-3432)

붙임1

닥터헬기 운영 제원

구분	소형헬기		중형헬기	
기종 (제작사)	AW109 (伊 레오나르도사)		AW169 (伊 레오나르도사)	
외형				
엔진	2 x Pratt&Whitney Canada PW207C		2 x Pratt&Whitney Canada PW210A1	
객실(명)	8		12	
전장(m)	12.96		14.65	
전고(m)	3.40		4.56	
최대이륙 중량(kg)	3,175		4,800	
최대순항 속력(km/h)	283		267	
최대 항속 거리(km)	833	환자 이송시 300	785	환자 이송시 600
최대 항속 시간	4h22m	환자 이송시* 1h40m	4h14m	환자 이송시* 3h00m

* 환자 이송시 : 의료장비 탑재, 의료진 및 환자탑승 기준 추정 시간

